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아름다운 마음들이 / 찬송가 199장

본문말씀 || 시편 112:1-6

- 1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 2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 3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살아 있다.
- 4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니,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롭기 때문이다.
- 5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 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사람이다.
- 6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후손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으며,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시편 112편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생각 ||

(영아/유치)

우리는 하나님을 ‘ㄱㅇ’해야해요.

(유년/초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을 받을 수 있어요.

(중고등/청장년)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으니까?
2.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정입니까?

함께 드리는 기도 ||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축복 기도 ||

(개인 감사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 축복 기도)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부모, 자녀 축복 기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자녀) ○○○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